

## 제6실 서예 | 고금목록초와 호류지의 옛 기록

### N-18 고금목록초 古今目錄抄

쇼토쿠 태자에 관한 전기와 호류지의 사원 내력을 적은 것으로, 13세기 전반에 호류지의 승려 겐신이 상하 두 권으로 편찬하였습니다.

### N-21 벳토기 別當記

<호류지 벳토 시다이>, <이본 호류지 벳토 시다이>, <호류지 벳토 보임사역 시다이>로 구성된 호류지의 벳토(사원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)에 관한 3권으로 된 기록입니다. 호류지 벳토들의 이름과 그 임기 중에 있었던 사원 내의 중요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.

### N-22 가젠기 嘉元記

가젠 3년(1305)부터 조지 3년(1364)까지 호류지 승려가 적어 내려온 기록입니다. 사원 건물의 경영과 연중행사 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

## 제 6 실 | 염직 | 매듭 번두와 다채로운 변죽

염직 코너에서는 산 모양무늬 매듭 번두를 중심으로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변죽을 전시합니다. 매듭 번두의 매듭은 황실 소장품 <쇼토쿠 태자와 두 왕자상> 속 태자가 허리에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로, 복식사에 있어서 귀중한 작품입니다. 또한, 변죽의 사례를 통해 풍요로운 고대의 색채 세계를 살펴봅니다.

### N-28-1: 황색 바탕 구름 넝쿨 사자무늬 능직비단 번두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불교 의식에서 사용된 비단으로 만든 깃발으로 번의 일부에 해당합니다. 이 작품은 머리(頭) 부분에 해당하므로 번두라고 불립니다. 구름을 넝쿨 풍으로 연결한 무늬 안에 앞발을 치켜든 용맹스러운 사자가 마주 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.



### N-50-2 : 산 모양무늬 매듭 번두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가나다란 끈목을 산 모양으로 꼰 번두 일부입니다.

끈목은 빨간색, 보라색, 연두색, 연갈색, 감색의 실을 이용해 평직과 같이 엮어 좌우대칭의 무늬를 나타낸 기법으로 산 모양을 표현했습니다. 고대에 매듭은 허리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, 황실 소장품 <쇼토쿠 태자와 두 왕자상>(그림 참조)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쇼토쿠 태자와 두 왕자상(쇼토쿠 태자의 허리띠 부분)

### N-311 : 적색 바탕 포도 넝쿨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나라시대(8세기)

번 아래쪽에 매다는 변죽의 일부입니다. 선명한 적색 바탕에 포도넝쿨무늬를 능직으로 표현했습니다.

### N-319-74-2 : 황색 바탕 마름모무늬 능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마름모를 반복해서 나타낸 능직비단입니다. 이러한 기하학무늬 능직비단은 오래된 기법에 해당합니다.

### N-319-39-1 : 청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쪽으로 염색한 변죽의 일부입니다.

### N-319-39-2 : 자색 바탕 시지라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시지라는 씨실과 날실을 강하게 꼬아서 짜낸 평직 직물입니다. 호류지의 옛 천 조각 중에서도 비교적 현존하는 예가 적어 귀중한 작품입니다.

### N-319-39-3 : 녹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녹색 염료가 없었던 고대에는 황벽나무나 역새풀 등으로 노랗게 염색한 뒤, 쪽으로 한 번 더 염색해 녹색을 표현했습니다.

### N-319-39-4 : 옅은 적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고대 염직품은 강한 원색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 변죽은 드물게 색채가 부드럽습니다.

### N-319-39-5 : 적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형태는 너털너털하지만, 마치 최근에 염색한 것처럼 색이 선명합니다.

### N-319-39-6 : 녹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제작 당시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변죽의 일부입니다. 좌우 양끝을 두 번 접어서 꿰매었습니다.

### N-319-42-1 : 자색 바탕 시지라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N-319-39-2를 참조.

### N-319-71-2 : 황색 바탕 평직비단 변죽 조각 아스카~나라시대(7~8세기)

갈색빛을 띠는 황색으로 염색된 변죽입니다. 노란색 번은 '명과번(죽은 뒤의 번)'이라 하여 죽은 이의 왕생을 기원하며 49일간 사원에 걸려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